



첫째, 만기가 있다?

적립식 펀드는 계속 추가 불입할 수 있으며, 운용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아 만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매수수료 면제를 위해 저축약관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만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약정한 만기 이후에 펀드를 환매하면 만기 전 적립금에 대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결국 적립식 펀드에서 말하는 만기는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로 이를 만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은행예금 상품과 달리 펀드는 만기가 없으며 기간을 연장해 계속 불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기 끝나면 더 이상 수익 없다?

은행예금 상품의 경우 만기가 끝나면 대개 적용 금리가 낮아집니다. 즉 만기 후엔 보통예금 이자만 주는데, 반면 펀드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투자자가 환매하기 전까지 계속 운용됩니다. 만기가 끝났다고 더 이상 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환매하지 않는 한 계속 펀드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식펀드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만기 이후라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결국 펀드의 환매는 만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을 때나 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